

요한 1 서 묵상 16
(9/10/2020, 목)

찬양: 191(427)(내가 매일 기쁘게)

성령님의 조명을 위한 기도: 다함께 말씀을 읽고 나누고 묵상할 때 주시는 성령님의 조명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말씀읽기: 요한 1 서 3:23-24

말씀에 대한 이해

사도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성도들을 향한 당부를 이어갑니다. 요한서신을 읽고 묵상하면서 발견할 수 있는 여러가지 특징들 중의 하나는, 요한은 중요한 메시지를 순환시키는 방식으로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동일한 메시지를 계속 돌려가며 성도들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앞에서 나온 메시지를 뒷부분에서 또 발견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러한 진술 기법을 사용하여 성도들의 심령에 말씀을 깊이 뿌리 내리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과 사랑의 실천, 그리고 그것을 통한 우리 심령에 내주하시는 주님과의 교통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말씀 속에 담아 주신 메시지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23 절). 23 절 -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 가운데 두 가지를 언급합니다. 그것은 첫째,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며, 둘째,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23 절에는 요한서신의 핵심이 다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과 사랑의 실천입니다. 믿음이 없는 진정한 사랑의 실천은 없습니다. 참된 사랑의 실천은 참된 믿음에서 나옵니다. 동시에 참된 사랑의 실천이 없는 진정한 믿음은 없습니다. 주님을 진실되게 믿는다면, 주님의 계명을 신실하게 지킵니다.

요한은 믿음의 내용, 다시 말해서 무엇을 믿어야 할지에 대해서도 본문에서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23 절). 요한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맹목적 믿음이 아니라 알고 믿는 믿음입니다. 나의 얕은 믿음의 시작은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런데 믿음이 시작되면 그 때부터 본격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얕이 보다 깊고 성숙한 믿음에 이르도록 도움을 줍니다. 아울러 참된 믿음과 참된 앎은 서로 상호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고 알고, 알고 믿습니다.

당시 영지주의자들을 비롯한 이단자들은 성도들의 믿음의 부분과 함께 앎의 부분을 흔들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깊은 믿음과 함께 바른 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나오는 바른 실천이 필요합니다. 그 실천은 믿음의 열매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은 사랑의 계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다면 사랑해야 함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성도는 심령 속에 믿음과 계명의 실천, 그리고 믿음과 사랑의 실천에 관한 주님의 말씀을 깊이 새겨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주님께로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주님을 향한 깊은 믿음과 신뢰, 깊은 사랑과 헌신으로 먼저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바깥으로, 사람을 향하여,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뻗어 가야 합니다. 성도의 삶은 이러한 영적 ‘인 앤 아웃’의 작용이 계속 원활하게 일어나야 합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24 절). 24 절 -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 구절 역시 요한의 핵심 메시지를 다시 선포합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주님과 우리의 영적 상호내주의 관계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요한복음 15 장에서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 15:4-5, 10 - 4.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5.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 10.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성령님과 믿음의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영적 상호내주의 역사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상호내주의 결과는 열매를 맺는 것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10 절에서는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고 말씀하심으로, 사랑의 실천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그 안에 있는 자가 당연히 행해야 하는 것임을 가르치십니다. 결국 믿는 자는 주님 안에 거하고, 그 거함 가운데 사랑을 실천하며, 그 실천은 다시 주님 안에 거함을 드러내는 증거 중의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을 다시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은 성령님을 통해 안다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키시며 그 믿음을 지켜나가도록 하십니다. 성령님은 성결의 영으로서 우리의 심령을 정결하게 하시며, 성령님은 보혜사로서 주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감동하심으로 사랑의 실천을 촉구하십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상호내주를 경험하며 확인하고, 아울러 영적 만족과 기쁨과 감사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믿음이 식어질 때, 사랑의 마음이 사라져갈 때, 그리고 삶의 문제로 마음이 상하고 괴로움과 근심 가운데 고통 당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주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며, 새 힘과 능력을 주시므로 연약한 나를 강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완악함으로 사랑을 잃기 쉬운 우리의 마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참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계명을 신실하게 실천하고 성령님의 역사를 사모함으로 승리하는 귀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 주신 말씀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 주신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함께 나눌 기도제목

1. 주님께 신실한 믿음으로 나아가며, 참된 사랑으로 세상과 사람들에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2. 오늘도 성령충만의 은혜 가운데 믿음, 소망, 사랑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3.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후원하는 35 곳의 선교지와 기관들을 주님의 강한 능력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4.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께 합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목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게 하옵소서(시 19:14).